

달빛내륙철도 구축 공감대...맥쿼리 재협상 가시화

뉴스현장 / 맥쿼리는 국감·광주·전남 현안 성과와 전망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6일 사실상 막을 내렸다. 이번 국감을 통해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제 2순환도로 재구조화·아시아문화원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통합 등의 지역 현안과 각 상임위별 이슈를 다뤘다. 전남지역 국회의원들도 지역 특성에 맞는 농어업과 항만 등에 대한 지적을 쏟아내며 대안을 제시하며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번 국감을 통해 달빛내륙철도와 전라선 고속화 등 지역 주요 철도망을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화 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반면, 이번 국감에서는 지역 최대 현안 사업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10개 상임위원회 종합감사를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 국정감사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정보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회도 조만간 국감을 끝낼 계획이다. 광주·전남 국회의원들도 이번 국감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안 사업을 점검했고, 지역 이슈에 대한 다양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북구갑·이하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의 예비타당성면제 사업 추진을 주장했다. 김희재(여수을) 국회의원도 "여수·순천·광양 등 전남 동부권에 연간 270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데도 전라선 KTX 익산~여수 구간은 여전히 시속 120km의 반쪽 고속철에 머물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라선 KTX 고속철화 촉구

전남 의대 설립 필요성 제시

최대 현안 광주 군공항 이전

시도 행정통합 질의 거의 없어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회사에 대한 제수사 요구도 제기했다.

민주당 이형석(북구을) 국회의원은 "맥쿼리 청탁을 받은 브로커의 농간으로 광주 시 이익을 위해 나선 전문가가 배제된 이후 '맥쿼리에 의한 맥쿼리를 위한' 협상이 되도록 협상단이 짜여졌다"며 경찰의 제수사를 촉구했다.

광주의 경우, 송갑석(서구갑) 의원은 "호남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이 1%로 전국 최하위이며, 종사자 수도 0.2%에 불과했고 광주 스마트그린산단 스마트공장 보급률도 2.2%로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는 등 수도권 중심의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연일 질타했다.

윤영덕(동남갑) 의원은 국감장에서 한전공대와 관련,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호남공약, 나주 등 특정 지역"을 언급하자 "호남공약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인다는 지역주의적 발언은 유감"이라며 적극적인 설립 의지를 불태웠고, '서울대 직원 계급화' '전남대 병원 갑질' 등 연일 교육 분야 문제점을 지적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병훈(동남을) 의원은 일본으로 건너

간 '백제의미소' 불상이 정부의 무관심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해 주목을 받았고, 정부를 상대로 지역 현안인 아시아문화원과 전당의 통합 문제를 지적했다.

전남지역 의원들은 농업과 어업, 항만 등에 대한 다양한 지적과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국감 기간 동안 매일 자료를 쏟아내며 정부의 안일한 농어업 행정을 질타했고, '위기의 식량자급' '사회약자 배려없는 국내 해수육장' '2020농업인인권조사보고서' '2020어업인인권조사보고서' 등의 책자도 때맞춰 펴내면서 '농어업 전문 국회의원'으로서의 면모를 내비쳤다.

검사장 출신인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여야 갈등과 대립이 극심했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근거 없는 질타보다는 '당부와 격려'를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았다.

주철현(여수갑) 의원에 여수항의 제자리 찾기과 관련된 지적을 쏟아냈고, 항만·물류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을 내놓았다는 호평을 받았다.

또 김원일(목포) 의원은 "지난 2016년 이후 활동 의사가 7915명 늘어났지만 이 가운데 74.8%는 수도권·부산·대구로 몰렸고 비수도권 지역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1880명이 의사 대신 의료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지역 현안인 전남 의대 설립의 공감대 형성에 앞장섰다.

하지만 상임위 불균형 등으로 일부 지역 현안이 이번 국감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점은 오점으로 남겼다.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질의는 사실상 전무했고, 전남지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 10명이 국회의원 중 농해수위에 5명이 배정돼 일부 질의가 중복됐고 여타 상임위 현안에는 목소리를 전혀 내지 못했다.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서 광주시·전남도 통합 관련 정부의 입장 등을 듣는 질의도 부족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독감 백신 적기 놓치면 더 큰 위험 코로나와 동시 확산 우려 집중 확대해야”

문 대통령 수보회의 주제

국민 소비진작 동참도 호소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독감 백신 접종 부작용 논란과 관련해 “부검 검사 및 종합적 판단 결과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올해는 독감과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동시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접종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보건 당국이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해 내린 결론과 발표를 신뢰해 달라”며 “과도한 불안감으로 적기 접종을 놓쳐 자칫 치명률이 상당한 독감에 걸리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 당국을 향해 “사망신고 사례에 대한 신속한 검사와 투명한 결과 공개, 지난해나 외국과 사례 비교 등을 통해 국민이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확산세에 대해

서는 “유럽 등에서 재봉쇄 등 비상조치가 강화되는데 반해 우리는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특별하고 예외적인 나라가 됐다”며 “방역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활동이 조금씩 정상화돼 다행이다. 소비 반등을 이끌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 기회를 살려 빠른 경제회복을 이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을 순차적으로 재개하고 소비·외식·관광·공연·전시 등 내수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본격 시행하기 시작했다. 국민들께서도 소비 진작에 함께 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결코 자만하거나 방심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잔뜩 움츠렸던 일상 활동에 기지개를 켜고 단풍을 즐기고 경제활동에 활기를 더하더라도 방역 수칙만큼은 반드시 지켜달라”며 “소비진작 역시 1단계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전제”라고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초·재선 의원들, 경험 부족에 의욕만큼 큰 성과 없었다

광주·전남 국회의원 국감 성적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6일 마무리됐다. 겸임 상임위원 국회 운영위와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은 11월 초까지 일주일 정도 더 열리지만 14개 상임위는 이날 감사를 마쳤다. 하지만 이번 국감도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로 끝났다는 평가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을 챙기고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안 제시를 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21대 국회 첫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피살 사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 라임·옵티머스 금융사기 사건, 윤석열 검찰총

성실한 준비·대처 호평 받아

주목 받는 국감 스타 없어

장의 작성 발언 등이 정제화됐다는 평가다. 정치권 주변에선 막장 정쟁 국감, 대안 없는 맹랑 국감이었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세력·세대 교체가 이뤄진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의욕을 가지고 비교적 성실하게 국감에 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초·재선 의원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경험 부족 등으로 성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 정국의 주목을 받을 만한 한 방을 내놓지 못하면서 전국적인 국감 스타로 부상하는 데는 힘이 부쳤다. 기대는 못 미쳤지만 낙제점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전반적인 평이다.

일부 의원들은 성실하게 국감에 임해 호

평을 받기도 했다. 산자위 여당 간사를 맡은 송갑석 의원(서구갑)은 이번 국감에서 대기업 기술탈취 문제점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한국전력 등 전력 기기업 감사에서 호남의 낙후된 전력 인프라 문제를 지적, 산업부 장관으로부터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행정위의 이형석 의원(북구을)은 광역시·자치구간의 세목 조정과 국가사무 지방이양 촉구 등과 함께 광주순환도로 졸속 협상 문제점을 짚고 공익 처분 대안을 제시해 만만치 않은 내공을 보였다.

국토위의 조오섭 의원(북구갑)은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와 관련, 정부의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김현미 장관의 사과를 받아내는가 하면 호남고속철도 2단계 궤도가 자갈철길로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콘크

리트 궤도로 설계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농해수위의 주철현 의원(여수 갑)은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여수항 개항 100년을 앞두고 여수엑스포 단지과 연계한 재개발을 통해 여수를 해양관광의 메카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하는가 하면 여수·광양항 통합을 통해 컨테이너 중심 물류에서 석유, LNG 등 새로운 해양 물류 발흥 육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 해수부 장관이 적극 동의하기도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광주·전남 의원들이 아직 경험이 부족한 측면도 있지만 대체로 성실하게 국감에 임했다”며 “다만,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연대와 공조를 통해 정부에 보다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지혜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의결 제 200107-중-103754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겨울철 넘어짐 골절질환
“ 척추골절, 손목골절, 고관절골절 ”
첨단우리병원에서 치료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 ◆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 ◆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자기랑이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 ◆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쉬어 쳐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열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